

  제주특별자치도 <small>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</small>		2018. 03. 27(화) 10:00 배포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상하수도본부	보 도 자 료 PRESS RELEASE	상수도부장	이종훈	☎ 750-7800
		상수도생산관리과장	장영진	☎ 750-7830
동영상 : 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	사진(웹하드) : 있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		후속자료 : 없음

중산간 용수공급 “맑음” ... 상수도 안정화 대책 수립

- 올 겨울 충분한 강우 및 적설로 제2저수지 40만 톤 이상 용수 확보 -

-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(본부장 강창석)는 금년 많은 적설량 및 강우량으로 어승생 제2저수지(50만톤)에 40만 톤 이상의 용수를 확보함에 따라 중산간 지역 용수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용천수 수위 저하 등으로 일부 우려되는 시내 지역은 “상수도 안정화 대책” 을 수립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.
- 중산간지역은 금년 한라산 지역에 780mm이상(윗세오름 3.22일 기준)의 강우와 잦은 대설로 작년에는 10만 톤 미만(제2저수지)의 저수량에서 40만 톤 이상의 저수량이 확보(사진참조)됨에 따라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, 상수원으로 사용하던 예비지하수 등도 예비용도로 전환하여 전력료 등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. 그러나 최근 급격한 이상 기후에 대비하여 기존 계획하였던 대체 취수원 개발 및 타 용도 지하수 활용검토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.
- 상하수도본부는 작년 극심한 가뭄 영향에 의한 용천수 수위 저하 등으로 시내 일부(월산, 강정)지역 급수난이 우려됨에 따라 “상수도 안정화 대책” 을 수립하였고, 삼양3수원지 조기 가동, 금산수원지 사업 조기추진, 연계정수장 시설개량을 통한 공급량 확대 방안, 급수취약지구 관경확장, 타 용도 지하수 활용 등을

심도 있게 추진 할 방침이다.

또한, 작년 농축산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논란이 되었던 서부 지역 수질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하여 ' 18. 2월부터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비절충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.

- 그리고, 제주도 유수율이 45.7%로 전국평균 84.8% 비해 현저히 낮아 장래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금년 1월 한국수자원 공사와 유수율 조기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였다.
- 올 연말 실시협약이 체결되면, '19년부터 '23년까지 유수율을 75%로 끌어올리고, 이후 상수도 관망정비로 전국수준 85%까지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며,
- 상수관망 시설개선 사업이 완료되면 하루 평균 수돗물 7만 6천 톤 (지하수 95공 대체개발 효과)이 절약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- 아울러, 도민과 함께 물 절약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물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고, 물 다량 사용업체에 대한 절수 설비와 절수기기 설치 여부 점검 등을 통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.
- 제주특별자치도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은 도내 물 문제에 대하여 철저하게 사전 대비하여 작년과 같은 유래 없는 가뭄에도 안정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도민에게 수돗물 절약의 생활화를 당부하였다.

여승생 제2저수지 전경



